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9 in D minor, WAB 109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작곡 시기: 1887–1896년
초연: 1903년 2월 11일, Vienna Musikverein 대연주장, Wiener Concertverein, Ferdinand Löwe 지휘
작품 유형: 네 악장으로 구상했으나 Finale를 완성하지 못한 교향곡
다루는 범위: 완성된 제 1–3악장, 현존 Finale 자필 자료, 주요 자료판과 연주용 완성판

IMSLP: Symphony No. 9 in D minor, WAB 109/143

Wikipedia: Symphony No. 9 (Bruckner)

Symphony No. 9 in D minor, WAB 109 는 Anton Bruckner가 네 악장으로 설계한 마지막 교향곡이다 . Bruckner는 제 1악장, Scherzo와 Trio, Adagio를 완성했지만 제 4악장 Finale의 총보를 마치지 못한 채 1896 년에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에는 완성된 세 악장만 연주하는 형태가 가장 널리 통용되며, Finale의 현존 자필을 단편 그대로 들려주는 문서형 공연과 편집자가 결손부를 보충한 네 악장 공연도 병존한다. 이 작품은 ‘세 악장 교향곡 ’이라기보다 , 세 악장이 완전한 악보로 남고 네 번째 악장이 서로 다른 완성 단계의 자료로 전하는 네 악장 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작품의 첫 출판본은 Bruckner의 악보를 그대로 옮긴 판본이 아니었다. 1903년 초연을 지휘한 Ferdinand Löwe는 관현악법과 화성, 프레이징을 크게 고친 세 악장판을 사용했고 Doblinger는 그해 이 개작 총보를 출판했다. 개입의 범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 판본이 약 30년 동안 연주되면서 , Löwe가 정리한
음향이 Bruckner의 원문처럼 받아들여졌다 .

전환점은 1932년 4월 2일 München에서 마련된 대조 공연이었다 . Siegmund von Hausegger와 Münchner Philharmoniker는 먼저 Löwe판을, 이어 자필 자료에 따른 원전형 본문을 연주했다. 두 번째 악보는 아직 출판 전이었으므로 이를 ‘1934년 Orel판 초연 ’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Alfred Orel이 편집한 총서판은 1934년에

출판되었고 , Leopold Nowak의 1951년판은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전
판본을 교정한 재판에 가깝다.

Benjamin-Gunnar Cohrs는 Orel과 Nowak의 작업을 자필과 다시 대조해 완성된 세 악장의 2000년 신판을 냈다. 비평 보고서는 2001년, 총보의 제 2개정쇄는 2005년에 나왔다. 이 판본은 기존 Anton Bruckner Gesamtausgabe 에 속한다. 2026년 9월 현재 MWV의 Neue Anton Bruckner Gesamtausgabe 와 Schott의 별도 Anton Bruckner Urtext Gesamtausgabe 에는 제 9번이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 Schott가 판매하는 Eulenburg

소형 총보 ETP 467은 Nowak 편집의 구전집 계열이지 새 우어텍스트 총서판이 아니다.

Finale의 자료는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한다. John A. Phillips는 흩어진 자필을 Bruckner의 쪽번호에
따라 배열한 연구용 총보를 1994년에 내고 1999년에 개정했으며 , 1996년에는 현존 자필의 팩시밀리를 출판했다. 2002년 Dokumentationspartitur 는 Bruckner의 음표가 남은 구간을 연주하고 결락부를
설명하도록 마련한 문서 총보다. 이 세 자료는 Finale를 새로 작곡해 끝낸 완성판이 아니다.

연주용 완성판은 다른 범주에 놓인다. William Carragan은 1979년부터 작업해 여러 차례 개정했고, Nicola Samale, John A. Phillips, Benjamin-Gunnar Cohrs, Giuseppe Mazzuca의 SPCM판은 1983년에 시작된 작업을 1992년 네 사람의 판본과 2012년 대규모 공동 개정으로 발전시켰다 . Phillips의 2021–22년판은 2012년 SPCM판을 네 사람이 다시 공동 편집한 것이 아니라, Phillips가 단독으로 손보고 Samale가 승인한 후속 연주본이다 . Gerd Schaller의 별도 완성판은 2016년 초연과 2018년 출판을 거쳐 현재 Ries & Erler

에서 2024년 개정판 으로 판매된다. 어느 완성판이든 Bruckner의 자필과 편집자가 보충한 연결, 내성, 관현악화, 코다가 함께 들어간다.

소요 시간

세 악장판의 출판사 기준 시간은 약 60분이다. 실제 녹음에서는 약 57분에서 69분까지 차이가 나며, 각 악장을 대체로 제 1악장 24–29분, Scherzo와 Trio 9–11분, Adagio 24–30분 정도로 연주한다. Finale 완성판을 붙인 연속 공연은 보통 약 80–90분이 걸린다. Simon Rattle의 2012년 SPCM판 녹음은 약 82분, Kahchun Wong의 2024년 Phillips 개정판 녹음은 약 88분이다. Nikolaus Harnoncourt가 연주한 Finale 자필 단편의 음악은 약 18분이지만, 결손부가 있는 네 단편의 합계이므로 완성된 제 4악장의 소요 시간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편성

목관: 플루트 3, 오보에 3, 클라리넷 3, 바순 3
금관: 호른 8, 트럼펫 3, 트롬본 3, 콘트라베이스튜바 1
타악기: 팀파니
현악기: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교대 악기: 제 5–8호른 주자가 바그너튜바 4대로 교대한다. 제 5·6주자는 B♭ 테너튜바, 제 7·8주자는 F
베이스튜바를 맡는다.

바그너튜바 주자 네 명이 호른 여덟 명에 별도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연주자가 Adagio에서 악기를
바꾸기 때문에 음색뿐 아니라 실제 무대 운용도 고려해야 한다. 네 바그너튜바는 이 악장에서 호른과 트롬본
사이의 어두운 코랄층을 형성하며, 작품의 금관 음향을 단순한 크기보다 서로 다른 음색군의 배치로 듣게 한다.

완성된 세 악장이 만드는 궤적
Bruckner는 1887년 8월 제 1악장 스케치를 시작했지만 이전 교향곡들의 개정과 다른 작품 때문에 작업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 제 1악장에 1893년 12월 23일, 최종 Scherzo와 Trio에 1894년 2월 15일, Adagio에

1894년 11월 30일에 초연 되었다. 전체 구성은 전통적인 4악장 형식을 따르고 있다. 1악장은 D단조 소나타 형식, 2악장은 A장조, 3악장은 Scherzo, E장조 Adagio로 되어 있다. 이 교향곡은 전체적으로 장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제1악장 : 신비로운 분위기의 장엄한 서주

Feierlich, misterioso로 시작하는 1악장은 총 연주시간 약 20분 정도로 상당히 길다. 조용한 현악기의 트레몰로 위에 호른이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주제는 교향곡 전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며, 2악장 후반부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1악장 후반부에서는 이 주제가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마무리된다.

이 악장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제시부에서 제1주제는 D단조로 제시되고, 제2주제는 F장조로 제시된다.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의 동기가 다양하게 변형되며 전개된다. 재현부에서는 제1주제가 D단조로 돌아오고, 제2주제는 D장조로 재현된다. 코다에서는 제1주제의 동기가 점점 느려지면서 조용히 마무리된다.

Manfred Honeck의 2019년 녹음은 이 악장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다. 특히 Miserere 주제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Honeck의 섬세한 지휘가 돋보인다. 전체적으로 Honeck의 템포 설정은 다소 느린 편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곡의 장엄함을 더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2악장 : Scherzo와 중간부 Trio

Scherzo. Bewegt, lebhaft – Trio. Schnell로 D단조 Scherzo와 F♯단조 Trio, Scherzo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ABA 형식을 따르고 있다. 1악장과 대조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현악기의 빠른 움직임과 목관악기의 재치있는 대화가 인상적이다.

F♯단조 Trio는 3/8박자로 되어 있으며 Scherzo와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클라리넷과 바순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며, 현악기의 반주가 이를 뒷받침한다. Honeck의 4악장 녹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템포를 조금 느리게 잡아 서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1889년 F단조 1893년 F♯단조 두 Trio 모두 이 교향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월 1894년 이 Trio는 .

제3악장 : 장엄한 서주, 그리고 마지막 작별

Adagio. Langsam, feierlich로 E장조 소나타 형식 ·이다. 전체 구성은 제1

화성 블록이 차례로 응답한다. 각 단락은 앞선 음악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음역과 악기 조합을 바꾸어 더 높은 절정으로 접근한다.

후반의 전관현악은 고밀도의 불협화음을 만든 뒤 급격히 힘을 거둔다. 여기에서 화음에 포함된 음의 수를 하나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해설자마다 화음을 세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충돌 뒤에 E 장조 코다가 놓이고, 호른과 바그너튜바 , 현악이 맡은 단편들이 긴 침묵 사이에서 정리된다는 점이다. 실제 세 악장 공연에서 이 코다는 매우 강한 종결감을 얻었다. 그러나 Bruckner가 이를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으로 작곡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Adagio를 완성한 뒤에도 약 2년 동안 Finale를 계속 작업했다.

Finale는 얼마나 남아 있는가
Finale 기보가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날짜는 작곡가의 수첩에 적힌 1895년 5월 24 일이다. 현존 자료에는 전관현악 총보, 현악 중심의 축약 총보, 진행 초안과 코다 스케치가 함께 남아 있다. 제시부의 상당 부분은 관현악화가 진척되었고 , 이후 음악도 재현부 후반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Bruckner가 번호를 매긴 네 쪽짜리 겹장 가운데 적어도 여러 장이 사라졌으며 , 뒤로 갈수록 내성과 관악기, 연결부의
공백이 커진다. 코다에는 주제와 화성, 종지 방향을 보여 주는 메모가 있지만 이를 하나의 연속 총보로 완성한 자료는 없다.

Phillips가 정리한 자료에서 Finale는 D단조의 변형된 소나타 구조를 드러낸다. 도입 동기가 주주제로
확대되고, 제 2주제군 뒤에 큰 코랄이 종결주제군을 이룬다. 발전부에서는 도입 재료와 Te Deum의 네 음
동기가 다뤄지며, 재현부에서 주주제가 푸가로 바뀐다. 그 뒤 제 2주제군과 코랄이 돌아오고, 코랄과 Te Deum 동기가 겹치는 대목과 호른 주제의 에필로그까지 자필 총보가 이어진다. 다만 이 연속 안에도 분실된 악보지와
덜 채워진 부분이 섞여 있다. 연속 총보가 없는 코다를 어떻게 잇고 끝낼지는 완성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SPCM과 Phillips의 연주본에서 쓰는 Misterioso, nicht schnell 은 관련 자필의 부분적 빠르기 지시를
참고해 편집진이 정한 악장 첫머리의 빠르기말이다 . Bruckner가 완성 총보에 확정해서 남긴 표제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Finale 스케치에 과거 별도 번호 WAB 143을 붙이기도 했지만, 개정 작품목록은 이
자료를 교향곡 전체의 WAB 109에 통합한다.

‘사랑하는 하느님 ’과 Te Deum

제 9번을 ‘사랑하는 하느님께 ’ 바쳤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dem lieben Gott 라는 문구가 현존 자필 표제면에 적힌 정식 헌정문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의사 Richard Heller가 전한 Bruckner의 말을 Max Auer 등이 기록한 구술 전승이 근거다. 그러므로 작품의 종교적 성격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인쇄 악보에 확정된 헌정문처럼 제시하면 증거의 성격이 바뀐다.

Bruckner가 Finale를 완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Te Deum을 뒤에 연주하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회고 자료로 전한다. 작곡가는 교향곡에서 C장조 합창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 두 작품을 실제 공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완성 악보는 남지 않았다. 1903년 초연 프로그램은 세 악장을 마친 뒤 휴식을 두고 Te Deum을 연주했다. 이는 작곡가의 대안을 존중하려는 역사적 선택이지만 , 독립 합창곡을 자필 Finale와 같은 제 4악장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한 작품에 공존하는 세 가지 공연 형태

Adagio에서 끝나는 세 악장
가장 널리 연주되는 형태는 완성된 제 1–3악장만 사용한다. 이 선택은 악보에 후대 작곡을 보태지 않고 Bruckner가 관현악 총보로 마친 음악만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연주 전통 속에서 Adagio 코다는
독립적인 종결로 받아들여졌고 , 지휘자들은 약 60분의 세 악장을 하나의 큰 호흡으로 조직해 왔다. 다만
이러한 수용사를 작곡가의 원래 네 악장 계획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1938년 Siegmund von Hausegger와 Münchner Philharmoniker의 녹음은 이 형태의 출발점을 기록한다. 1932년 원전 회복 공연을 맡았던 지휘자와 악단이 Orel 계열의 본문을 약 55분에 담은 첫 상업 녹음이기 때문이다. Carlo Maria Giulini와 Wiener Philharmoniker의 1988년 Musikverein 녹음은 Nowak판을 약 68 분 30초에 펼친다. 같은 세 악장이 훨씬 넓은 시간 안에서도 구조를 유지한 사례다.

Claudio Abbado와 Lucerne Festival Orchestra의 2013년 녹음은 21–26일의 공연과 리허설 자료를 조합한 약 63분의 편집본이며 , Abbado의 마지막 연주 기간을 담았다. 큰 금관 덩어리 안에서도 목관과 현악의 내부 선을 투명하게 드러낸 이 음반은 2015년 Gramophone의 Recording of the Year 로 선정되었다 . 세 녹음의 시간 차이는 어느 하나가 표준이라는 뜻이 아니다. 원전 회복 직후의 빠른 맥박, 넓은 호흡으로 쌓은 장대한 구조, 성부를 투명하게 나누는 현대적 균형이 세 악장 전통 안에서 서로 다른 답을 이룬다.

결손을 들려주는 문서형 공연

Phillips의 Dokumentationspartitur 는 Finale의 현존 자필만 연주하고 사라진 대목을 숨기지 않는다. Harnoncourt는 이 자료를 네 단편으로 나누어 연주했으며 , 결손 지점에서는 말과 침묵으로 다음 자필
대목까지의 공백을 설명했다. 코다 스케치는 연주하지 않았다. 이 방식은 완성된 악장을 감상하게 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Bruckner의 실제 총보이고 어디부터 연속성이 사라지는지를 청중이 귀로 확인하게 한다.

Harnoncourt와 Wiener Philharmoniker의 Salzburg 실황은 2002년 8월에 녹음되어 2003년에 발매되었다 . 음반에는 Cohrs 2000판에 따른 제 1–3악장과 약 18분의 Finale 단편, 독일어와 영어 설명이 함께 실렸다. 세 악장 종결과 후대 완성판 사이에 ‘현존 자필을 공연 가능한 문서로 만든 형태 ’가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사례다.

결손을 잇는 연주용 완성판

연주용 완성판은 자료의 공백을 침묵으로 남기지 않는다. 남은 진행 초안과 작곡가의 관습을 토대로 수평적
연결을 만들고, 비어 있는 내성과 관현악을 채우며, 코다를 작곡해 네 악장을 연속시킨다 . Carragan, SPCM, Phillips의 후속 개정, Schaller판은 보충의 범위와 종결 설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음반에는 편집자와 개정년을 함께 밝혀야 한다.

Rattle은 SPCM 2012판을 지휘하며 Finale에 앞 악장의 주제들이 관련 빠르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 1악장과 Adagio를 지나치게 늘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네 악장은 서로 연결된 걸음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는

2012년 인터뷰 에 기록된 특정 판본의 해석 원리이며, 세 악장 공연을 무효화하는 객관적 규칙은 아니다. Berliner Philharmoniker와의 약 82분짜리 녹음은 SPCM 2012판을 국제적인 연주 레퍼토리로 널리 알린 기록으로 남았다.

Phillips는 이후 푸가의 결손부와 코다 연결, 빠르기와 셈여림, 아티큘레이션을 다시 검토해 2021–22년 개정판을 만들었다. Robin Ticciati와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가 2022년 11월 30일 초연했고, Wong과 Hallé가 2024년에 녹음해 2025년에 첫 상업 음반을 냈다. 이 음반의 제 1–3악장은 Kito Sakaya가 준비한 연주판이며 , Finale만 Phillips의 후속 개정이다. Hallé의 발매 안내 가 ‘최신 네 악장판 ’이라고 부르는 대상도 Bruckner 자신의 완성 총보가 아니라 이 편집 계보다.

Wong은 같은 해 Japan Philharmonic과는 Cohrs판 세 악장을, Hallé와는 약 88분의 네 악장판을 지휘했다. 한 지휘자가 두 형태를 병행한 사실만으로도 현재의 선택은 ‘완성 ’과 ‘미완성 ’ 가운데 하나를 승인하는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세 악장판은 작곡가가 완결한 관현악 총보에 머물고, 문서형 공연은 결손을 드러내며, 연주용 완성판은 편집자의 판단을 밝혀 놓고 네 악장 구상을 실제 시간으로 구현한다.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읽는 방법
제 9번의 미완성 상태는 Adagio의 가치와 Finale의 중요성을 서로 경쟁시키지 않는다. Adagio는 현존하는
완성 악장으로서 강한 종결을 이루고, Finale 자료는 Bruckner가 그 종결 뒤에 더 큰 대위적 악장을 계획하고
상당 부분 작업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세 악장 공연에서 얻는 침묵은 오랜 수용사가 만든 설득력을 지니지만, 그 침묵을 작곡가가 의도한 최종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자필의 분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완성된 Finale’를 복원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악보지의 분실, 뒤로 갈수록 성겨지는 관현악, 연속 총보가 없는 코다는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요구한다. 좋은 자료판은 그 경계를 표시하고, 좋은 완성판은 어느 부분을 어떤 원칙으로 보충했는지 밝힌다.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어느 결말이 정답인지 먼저 고르기보다 , 자신이 듣는 공연이 세 악장 원전인지, 자필 단편의 문서화인지 , 특정 편집자의 연주용 완성판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요 자료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Symphony No. 9 in D minor: Cohrs의 제 1–3악장 비평판, Phillips의 Finale 자료판, 편성 및 기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John A. Phillips, Bruckner's Ninth Revisited: 작곡 연대, 헌정과 Te Deum 전승, Finale 자필의
배열과 결손을 다룬 연구다.
Wiener Symphoniker, Symphonie Nr. 9 d-Moll, WAB 109: 1903년 Löwe판 초연의 날짜와 악단 계보를 제공한다.
Münchner Philharmoniker, Symphonie Nr. 9 d-Moll: Hausegger가 1932년에 마련한 두 판본의 대조 공연을 설명한다.
Bruckner Online, 기존 총서 판목록: Orel의 1934년 총보와 자료편을 비롯한 초기 원전 출판을 확인할 수 있다.

John A. Phillips, The “SPCM” Finale of Bruckner’s Ninth Redux: 2021–22년 개정의 범위와 자필, 스케치, 추론 보충에 대한 편집자의 분류를 제시한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2022년 11월 30일 프로그램: Phillips 개정판의 초연 표기와 편집자 해설을 담고 있다.
Nikolaus Harnoncourt, Bruckner: Symphony No. 9: Cohrs판 세 악장과 Phillips 문서 총보를
결합한 공연 ·녹음의 공식 자료다.
Warner Classics, Rattle의 네 악장판: 2012년 SPCM Finale를 사용한 Berliner Philharmoniker 음반의 공식 발매 정보다.
Hallé, Wong의 제 9번 발매: Phillips 2021–22 Finale 개정판을 사용한 첫 상업 녹음의 자료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0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20 UTC by 안준영